

장애 이슈에 대한 문헌정보학과의 교육 현황 분석*

An Analysis of the Education Trend on the Disability Issues in LIS Departments

김 선 호(Seon-Ho Kim)**

< 목 차 >

I. 서론	III. 장애 이슈의 교육현황 분석 및 결과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교과목 현황 분석
2. 연구 방법과 제한점	2.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 및 강의 내용 분석
II. 이론적 배경	3. 분석 결과 및 요약
1. 선행 연구	IV. 결론 및 제언
2. 연구 추세	

초 록

최근 들어 도서관의 관중에 상관없이 사서는 장애인에게 정상인과 동등한 서비스와 효율적인 시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장의 사서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서도 장애 이슈의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요구와 그들의 정보입수행위를 규명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 이용자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경험과 입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헌정보학과의 교육 환경을 장애 관련 교과목, 교수의 교과목 개설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그들의 강의 내용을 조사 분석하여 개선된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 문헌정보학과에서 앞으로 추구하여야 할 장애 이슈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문헌정보학 교육 추세,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장애인 봉사, 장애 교육

ABSTRACT

Nowadays, librarians try to provide equal services and effective facilities to people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this context, the current and prospective librarians should have a wide range of knowledges and skills that can identify and understand their patron's needs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through disability issues education. This study aims at presenting the advanced directions of the LIS education in order to enhance a librarian's experience and strengthen his/her hand on library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result of the study suggests some directions on disability issues in LIS education in the future.

Keywords: LIS Education Trend, LIS Curriculum, The Disabled Services, Disability Education

* 본 연구는 2009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unkim@daegu.ac.kr)

• 접수일: 2010년 11월 25일 • 최초심사일: 2010년 12월 7일 • 최종심사일: 2010년 12월 24일

I. 서론

최근 들어 도서관의 장애 이슈¹⁾에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²⁾ 그리고 제도적³⁾ 환경이 변화하였다. 이 같은 환경변화의 주요 열쇳말(keyword)은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평등한 접근성이며, 이것은 누구나 민주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권리의식이 문헌정보학으로 확산됨으로써 장애 이슈에 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장애 이슈에 대한 학계의 초기연구 주제는 주로 시각장애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독서치료 및 난독증과 같은 학습장애 분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이용자 연구도 유아, 어린이, 청소년, 가정주부, 성인 그리고 노인 등으로 다양해 졌다.

현재 문헌정보학과의 거의 모든 교육은 정상인을 주요 봉사대상으로 지정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 이슈에 대한 교육은 부차적 주제로 인식되고 있다. 문헌정보학과의 이러한 현실감은 과거와 달리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도서관계의 내외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의 사서를 교육 시키고 준비시키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일 미래의 사서가 도서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 하도록 장애 이슈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규적으로 받는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장애 이용자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마련해 줌으로써 만인에게 편견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사서의 이러한 서비스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에도 더욱 더 중요한 도서관의 사회적 책무가 될 것이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서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장애 이슈에 대한 이해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서에게도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문헌정보학과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과에서는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교육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장애 이슈에 관하여 보다 개선된 교육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장애 이슈 교육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장애 이슈 교육에 대한 보다 개선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 장애인, 장애인관련법, 장애인 서비스, 보조기술 등을 의미함.

2)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3) 초·중·고등학교의 통합교육,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대학의 점자문헌정보학과 등.

2. 연구 방법과 제한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장애 이슈 교육에 대한 국내외 연구 추세를 문헌조사를 통해 조사 분석한다.
- 2) 장애 이슈 교과목의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의 문헌을 조사 분석한다.
- 3) 전국 문헌정보학과의 교과목을 분석하여 장애 이슈 교과목의 현황을 파악한다.
- 4) 전국 문헌정보학과의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장애 이슈를 강의하는 교과목과 그 강의 내용을 조사 분석한 다음에, 교과목으로의 개설여부를 조사 분석한다.
- 5)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새로운 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 1) 강의 데이터 수집대상을 강사를 제외한 교수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장애이슈 강의내용의 전체를 포괄하지 못할 수 있다.
- 2) 학술 DB, 학과 홈페이지, 참고도구 그리고 온라인 설문지만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분석내용이 현재의 교육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선행 연구

본 연구의 논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정진식,⁴⁾ 한복희,⁵⁾ 손정표,⁶⁾ Kyung-Mook Oh와 Yenkeum Chang⁷⁾ 그리고 Kelly Blessinger와 Paul Hrycaj⁸⁾ 등이 문헌정보학의 교육 및 연구 현황을 분석한 논문을, 그리고 엄영애⁹⁾와 Tammanro¹⁰⁾ 등은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시대별 변화를 추적하여

4) 정진식, "한국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1996~200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5권, 제3호(2001. 09), pp.55-78.

5) 한복희, "지식기반사회에서 이용자연구의 최신동향,"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4호(2003. 12), pp.295-310.

6) 손정표,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1957-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3호(2003. 09), pp.9-32.

7) Oh, Kyung-Mook and Chang, Yenkeum, "A Study on th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and Research Development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Vol.23, No.2(June 2006), pp.185-206.

8) Kelly Blessinger and Paul Hrycaj, "Highly cited articl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 analysis of content and authorship trend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32(April 2010), pp.156-162.

9) 엄영애, "문헌정보학 학부 교과과정의 변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9. 06), pp.409-427.

그 동향을 밝힌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의 논제와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의 논문 내용을 살펴보았으나, 손정표 만이 자신의 논문 내용에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특수봉사의 학술기사 연구동향을 간단하게 언급하였다.¹¹⁾ 그렇지만 그도 나머지 모든 연구자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주제별 그리고 교과목별 동향 분석 내용에 장애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 논문 이외에 국내외에서 발표된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과 장애 이슈와의 연관성을 연구한 논문을 검색해 본 결과, 국내에서는 찾기 어려웠고, 외국에서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장애 이슈와 문헌정보학 교과목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Walling¹²⁾은 자신의 서베이 보고서에서 ALA에서 인증받은 55개의 문헌정보학과 프로그램 중에서 36개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ADA(the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 AT(adaptive technologies)에 관한 강의 제공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ADA는 30개 학과의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서비스는 31개 학과의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AT는 25개 학과의 프로그램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장애 이슈와 관련된 교과목의 예를 다음의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결론적으로 ADA와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교육이 미래의 사서에게 중요하며, 특히 더 많은 교과목에서 AT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 1> 장애 관련 교과목의 예

전공필수: ADA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nage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 Reference and Information Services • Introduction to the Information Professions • Information Professions • Fundamental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Understanding Information
전공필수: 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unda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Facilities • Manage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전공선택: ADA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formation Transfer Among Special Populations • Interface Design • Public Libraries •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 Administration of Public Library Work with Children • Human Resources Management • Research for SLMCs • Government Information Sources

10) A.M. Tammaro, "A curriculum for digital librarians: a reflection on the European debate," *New Library World*, Vol.108, Issue5/6(2007), pp.229-246.

11) 손정표, 전계논문, p.26.

12) L.L. Walling, "Educating Students to Serve Information Seeker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5, No.2(Spring 2004), pp.137-148.

전공선택: ADA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terials and Services for Adults • Public Relations for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 Website Development and Administration
전공선택: 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ystem Analysis and Design • Design of Automated Systems • Public Libraries • Academic Libraries • Children's Literature • Library Programs for Children • Internet/Web Page Design • Demonstrations in courses at the request of the instructor

Carlos¹³⁾는 자신의 석사학위논문에서 ALA에서 인증 받은 9개의 문헌정보학과의 교과목을 대상으로 장애관련 서비스와 AT에 대한 교육의 종류와 정도를 조사하면서, 다음의 <표 2>와 같은 교과목에서 장애 이슈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표 2> 대학별 장애 이슈 강의 교과목 및 내용

학교 이름	교과목	내용
Dominican Univ.	Planning and Equipping Libraries	ADA에 따른 도서관 설계
Indiana Univ.	Library Automation	접근가능한 자동화 도서관시스템의 구축
State Univ. of N.Y. Albany	Computing and Disability	웹 접근성
the Univ. of Maryland	Building the Human-Computer Interface	서비스
the Univ. of Kentucky	Information Policy and Technology Regulation	서비스
San Jose State Univ.	Reference and Information Services	서비스

그는 결론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 이용자의 수가 늘어나고 장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사서의 관심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미국 문헌정보학과에서는 아직까지 장애 이슈에 대한 교육이 표준화되지 않았으며, 조사대상 학과 모두 장애인법, 서비스 그리고 AT 교육의 개선 및 강화에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Koulikourdi¹⁴⁾는 그리스에서 문헌정보학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3개의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그들의 교과목에서 장애인, 장애인의 도서관 접근성, 장애관련 법률, 대체 포맷, 그리고 AT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는 결론에서 아직까지 그리스의 도서관 교육은 비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으로 인하여 장애 이슈와 관련된 어떠한 교과목도 존재하

13) Deborah J. Carlos, Instruction in Disability Services and Adaptive Technology in School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 Survey of the Curriculum(Master Thesis, The Schoo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2005).

14) Anna. Koulikourdi, "Library education and disability issues," *Education for Information*, Vol.26(2008), pp.203-212.

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그는 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진 또한 전혀 없기 때문에 졸업생은 장애 이슈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사서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와 달리, 미국에서는 비록 장애 이슈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교과목이 2개 - Information Transfer Among Special Populations Interface Design과 Computing and Disability - 에 불과하지만, ALA에서 인증을 받은 약 66% 이상의 문헌정보학과 프로그램에서 ADA, 장애인 서비스 그리고 AT에 관한 내용을 다양한 교과목에서 강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연구 추세

일반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교육은 관련 연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과의 장애 이슈에 관한 교육 환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 주제의 연구 추세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도 선행연구 못지않게 도움이 될 것이다. 문헌정보학과의 장애 이슈에 대한 연구 추세는 다음과 같다.

1970년대 후반부터 문헌정보학과의 장애 이슈 교육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미국¹⁵⁾과 달리, 국내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이 분야의 연구¹⁶⁾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를 출발점으로 하여 문헌정보학과의 장애 이슈와 관련해서 생산된 학위논문과 학술기사를 연도별로 조사하여 그 추세를 살펴보기로 한다.

학위논문 검색은 2010년 2월까지를 기준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국회도서관의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를 메타검색하여 히트된 결과를 수집하였다. 그런 다음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의 순수한 연구 추세만을 분석하기 위하여, 검색된 데이터 중에서 사회복지학, 건축디자인학, 행정학 등의 타 전공분야의 일반대학원과 행정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그리고 특수대학원에서 생산된 학위논문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일반대학원의 문헌정보학 전공에서 생산된 장애 이슈의 학위논문은 13편이었다.

그리고 장애 이슈의 학술기사는 1986년에서부터 최근까지 비록 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주요 학회지에 관련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게재된 학술기사를 창간호에서부터 2009년 권호까지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로 32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총 45편의 논문의 시대별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분석한 것이 다음

15) L.L. Walling, *op. cit.*, p.137.

16) 손문철, 김영귀, "시각장애자를 위한 도서관 정보봉사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제3호(1986), pp.29-58.

의 <표 3>이다.

<표 3> 장애 이슈의 연도별 논문의 수

논문의 유형	1986-1989	1990-1999	2000-2009	계(%)
학위논문	2	4	7	13(29)
학술기사	1	4	27	32(71)
계(%)	3(7)	8(18)	34(75)	45(100)

<표 3>을 살펴보면, 장애 이슈의 논문은 1980년대 보다는 1990년대가, 그리고 1990년대보다는 2000년대에 더 많은 논문이 생산되었다는 것과 학위논문보다는 학술기사가 더 많이 생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히 학위논문이나 학술기사 모두 2000년대에 그 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장애 이슈로 생산된 논문의 총 수는 10년 단위를 기준으로 최소한 약 3배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장애 이슈의 교육현황 분석 및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앞에서 기술했듯이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헌정보학과의 교육현황을 현재의 교과목, 교수의 교과목 개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장애 이슈에 대한 강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1. 교과목 현황 분석

장애 이슈에 대한 문헌정보학과의 교과목의 개설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의 40개 문헌정보학과(4년제 대학교의 33개교와 2년제 대학의 7개)¹⁷⁾를 대상으로 이들 학과의 학부와 대학원의 모든 교과목과 개요를 각 학과의 홈페이지와 참고도구¹⁸⁾를 이용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가. 학부 교과목

조사대상 학과의 학부과정에 장애 이슈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과의 수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17) 사서e마을 홈페이지, <<http://www.librarian.co.kr/282135>>.

18) 노영희, 안인자, 최원태, 한국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서울 : 한국학술정보(주), 2009).

〈표 4〉 장애 이슈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부학과의 수

학과의 구분	빈도(%)
개설학과	2(5)
비개설학과	38(95)
계	40(100)

〈표 4〉를 살펴보면, 학부과정에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학과는 전체 학과 중에서 5%인 2개 학과¹⁹⁾에 불과하며, 절대 다수의 학과에서 이 주제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를 근거로 4년제 대학교와 2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교과목 개설 현황을 분석한 것이 다음의 〈표 5〉이다.

〈표 5〉 학년제별 교과목의 개설 현황

학년제	비개설학과 수(%)	개설학과 수(%)	계(%)
4년제 학과	31(94)	2(6)	33(100)
2년제 학과	7(100)	0(0)	7(100)

〈표 5〉를 살펴보면, 4년제 학과 33개 중에서 이 주제를 교과목으로 개설한 학과는 2개(6%)이지만, 2년제 학과 7개 중에서는 한 개의 학과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표 4〉와 〈표 5〉의 분석을 통하여, 문헌정보학과의 학부 교과목 개설에서 장애 이슈 교과목은 거의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대학원 교과목

문헌정보학과의 대학원 교과목도 학부 교과목과 마찬가지로 2009년을 기준으로 석박사과정에서 개설되어 있는 27개 대학원의 학과를 대상으로 학부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가 다음의 〈표 6〉이다.

〈표 6〉 장애 이슈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원의 수

학과의 구분	빈도(%)
개설학과	1(4)
비개설학과	26(96)
계	27(100)

19) 대구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표 6〉을 살펴보면, 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장애 이슈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과는 전체 학과의 4%인 1개 학과²⁰⁾이며, 절대 다수의 학과가 학부와 마찬가지로 개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분석들을 통하여 장애 이슈의 교과목은 문헌정보학과의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의 개설 교과목에서 거의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 및 강의 내용 분석

앞 장에서 밝혔듯이, 문헌정보학과에서 장애 이슈 교과목의 개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교과목의 개설 필요성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도와 이 주제의 내용을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의 강의에 포함시키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온라인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이들 주제는 다시 10개의 문항과 1개의 기타를 포함하여 총 11개의 문항으로 세분하였다.

- 담당 교과목에서 장애 이슈의 강의 여부: Q1
- 장애 이슈의 교과목 개설 여부: Q2-Q5
- 장애 이슈를 강의하는 교과목: Q6-Q10
- 기타 - 개선 방안이나 제언: Q11

이러한 내용의 설문지를 전국 4년제 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54명을 대상으로 2010년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배포하여 81명(53%)으로부터 그 결과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의 질문 내용을 위에서 언급한 3개의 주제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담당 교과목에서 장애 이슈의 강의 여부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상대로 현재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에서 장애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는지를 질문하였으며, 이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을 분석한 것이 다음의 〈표 7〉이다.

20) 연세대학교 대학원.

〈표 7〉 장애 이슈의 강의 여부

강의 여부	빈도(%)
예	17(21)
아니요	64(79)
계	81(100)

〈표 7〉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모집단인 81명 중에서 자신의 강의에 장애 이슈를 포함시킨다는 응답자는 17명(21%)이며, 나머지 64명(79%)은 이 주제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집단인 교수의 약 20% 정도가 장애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장애 이슈의 교과목 개설 여부

〈표 7〉에서 ‘예’라고 응답한 17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장애 이슈의 교과목 개설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하였으며, 그 응답내용이 다음의 〈표 8〉이다.

〈표 8〉 장애 이슈의 교과목 개설 여부

교과목의 개설	빈도(%)
예	10(59)
아니오	7(41)
계	17(100)

〈표 8〉을 살펴보면, 이 주제를 강의에 포함하고 있는 17명 중에서 교과목으로 개설하는데 동의한 교수가 과반수를 넘은 10명(59%)이고, 반대하는 교수가 7명(41%)이므로 개설하는데 찬성하는 교수가 반대하는 교수보다 약 1.5배 정도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장애 이슈를 강의하는 교수들은 이 주제를 교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지만, 모집단 전체적으로 보면, 이들 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2%정도이다.

〈표 8〉에서 교과목 개설을 선호한 교수 10명만을 대상으로 다시 이 주제를 전공필수로 할 것인지 또는 전공선택으로 할 것인지를 물어 그 대답을 분석한 것이 다음의 〈표 9〉이다.

〈표 9〉 전공종류의 선택

전공종류	빈도(%)
필수	1(10)
선택	9(90)
계	10(100)

〈표 9〉를 보면, 교과목으로의 개설을 지지한 10명 중 1명(10%)만이 전공필수를, 그리고 나머지 9명(90%)은 전공선택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과목 개설을 지지한 교수들의 절대 다수가 이 주제는 전공선택으로 개설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본 연구의 모집단을 기준으로 그 비율을 분석해 보면, 전공필수를 선호한 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이고, 전공선택을 선호한 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8〉에서 교과목 개설에 동의한 10명을 대상으로 그 교과목을 학부과정으로 할 것인지, 대학원과정으로 할 것인지, 또는 양쪽 과정에 다 포함시킬 것인지를 다시 질문하였으며, 그 대답을 분석한 것이 다음의 〈표 10〉이다.

〈표 10〉 개설과정의 선호도

개설과정의 종류	빈도(%)
학부과정	3(30)
대학원과정	5(50)
모든 과정	2(20)
계	10(100)

〈표 10〉을 살펴보면, 교과목 개설에 동의한 10명의 교수 중 3명(30%)은 학부과정에, 5명(50%)은 대학원과정에, 그리고 나머지 2명(20%)은 양쪽 과정 모두 개설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교과목 개설을 선호하는 교수들은 학부과정보다는 대학원 과정에 개설하는 것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모집단을 기준으로, 학부과정을 선호한 교수는 전체 교수의 약 4%이고, 대학원과정을 선호한 교수는 약 6%이며, 모든 과정을 선호한 교수는 약 2%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8〉에서 교과목 개설을 반대한 7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하여 분석한 것이 다음의 〈표 11〉이다.

〈표 11〉 교과목 개설의 반대 이유

반대 이유	빈도(%)
일반 교과목에서 강의	5(71)
개설학점의 제한성	2(29)
계	7(100)

〈표 11〉을 살펴보면, 개설에 반대한 7명 중 5명(71%)은 일반 교과목에서 강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였고, 나머지 2명(29%)은 개설학점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개설에 반대한 교수들의 주요 원인은 일반 교과목 강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과 이들이 전체 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6%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애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 교과목

- 장애관련법
- 서비스
- AT
- 기타(장애 유형 등)

먼저 〈표 7〉에서 '예'로 대답한 17명을 대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내용을 위의 4가지의 세부주제 별로 하나씩 조사한 다음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1) 장애관련법

도서관법의 장애인 관련 조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법, 저작권법 등과 같은 장애관련법을 강의한다는 응답자는 7명(41%)이었으며, 이들의 강의 교과목은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장애관련법의 강의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경영 • 도서관정책 • 문헌정보학개론 • 정보법제론(대학원) • 정보센터론 • 특수이용자연구 • 학술정보센터경영론
--

〈표 12〉를 살펴보면, 장애관련법의 강의 교과목은 대학원의 1개 교과목을 포함하여 모두 7개의 교과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장애관련법의 강의는 비록 교과목이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주로 도서관 경영과 정책 교과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주제를 강의하는 교수의 비율이 전체 모집단의 약 9%이다.

(2) 서비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웹 접근성, 그리고 방문봉사(outreach service) 등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강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대다수인 14명(88%)이 강의를 한다고 대답하였으며, 이들의 강의 교과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서비스의 강의 교과목

-
-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경영론
 - 도서관건축론
 - 디지털도서관연구
 - 멀티미디어론
 - 문헌정보학개론
 - 문헌정보학입문
 - 장서개발론
 - 정보서비스론
 - 정보센터론
 - 정보와 사회
 - 특수봉사론
 - 특수매체론
 - 특수정보관리론(대학원)
 - 학술정보센터경영론
 -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 경영론
-

〈표 13〉을 살펴보면, 서비스와 관련된 강의는 대학원 1개 교과목을 포함하여 모두 16개의 교과목이며, 장애인 서비스의 강의는 주로 도서관경영, 특수봉사 그리고 정보서비스 교과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 강의하는 교수의 비율은 전체 모집단의 약 17%이다.

(3) AT

DAISY 그리고 Kurzweil 3000 등과 같은 보조기술 및 보조기기에 대한 강의를 묻는 질문에는 6명(35%)이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며, 이 주제의 강의를 이루어드는 교과목은 다음의 〈표 14〉와 같다.

〈표 14〉 보조기술의 강의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경영론 • 디지털도서관 • 멀티미디어론 • 문헌정보학입문 • 재활공학 • 정보시스템개발 • 특수정보관리론(대학원)
--

〈표 14〉를 살펴보면, 보조기술 및 보조기기와 관련된 강의는 대학원 1개 교과목을 포함하여 모두 7개의 교과목이며, 도서관경영, 정보공학 그리고 정보시스템 등의 여러 교과목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 강의하는 교수의 비율은 전체 모집단의 약 4%이다.

(4) 기타(장애유형 등)

위에서 조사한 세부주제 이외의 장애유형과 편의시설 등의 기타 주제를 강의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8명(47%)이며, 이들이 강의하는 교과목은 다음의 〈표 15〉와 같다.

〈표 15〉 기타(장애유형 등)의 강의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경영론 • 대학 및 전문도서관론 • 독서치료 • 장서개발론 • 접자학개론 • 접자실습 • 정보정책론 • 특수이용자연구

〈표 15〉를 살펴보면, 기타 주제와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강의는 모두 8개의 교과목이고, 주로 도서관경영, 독서치료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세부주제에 대해 강의하는 교수의 비율은 전체 모집단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추가로 〈표 12〉, 〈표 13〉, 〈표 14〉 그리고 〈표 15〉의 분석을 근거로, 이들 4가지 세부주제 중에서 담당 교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장애인 서비스이고, 그 다음으로는 기타(장애유형 등), 장애인관련법, 그리고 AT 순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비율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장애인 서비스의 비율은 다른 나머지 세부주제의 비율에 비하여 약 2배 이상 높지만, AT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는 것이다.

위의 표들에서 비록 교과목 이름이 같거나 그 주제가 유사하더라도 교수의 강의 내용의 차이에 따라 장애 이슈의 세부주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조사된 각각의 교과목별로, 장애 이슈의 어떠한 세부주제의 강의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표의 교과목과 해당 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재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16>이다.

<표 16> 장애 이슈 강의 교과목과 강의 내용

교과목	교육내용	장애관련법	서비스	AT	기타(장애유형 등)
공공도서관		-	○	○	-
공공도서관경영론		-	○	-	○
대학 및 전문도서관론		-	-	-	○
도서관건축론		-	○	-	-
도서관경영	○	-	-	-	-
도서관정책	○	-	-	-	-
독서치료		-	-	-	○
디지털도서관		-	-	○	-
디지털도서관연구		-	○	-	-
멀티미디어론		-	○	○	-
문헌정보학개론	○	○	○	-	-
문헌정보학입문	-	-	○	○	-
장서개발론	-	-	○	-	○
재활공학		-	-	○	-
점자실습		-	-	-	○
점자학개론		-	-	-	○
정보법제론	○	-	-	-	-
정보서비스론		-	○	-	-
정보센터론	○	○	○	-	-
정보시스템개발		-	-	○	-
정보와 사회		-	○	-	-
정보정책론		-	-	-	○
특수매체론		-	○	-	-
특수봉사론		-	○	-	-
특수이용자연구	○	○	-	-	○
특수정보관리		-	-	-	-
특수정보관리론		-	○	○	-
학교도서관미디어센터경영론		-	○	-	-
학술정보센터경영론	○	○	○	-	-
계		7	16	7	8

<표 16>을 살펴보면, 문헌정보학과의 28개 교과목에서 장애 이슈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고 있으며, 강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세부주제는 장애인 서비스이고, 나머지 장애인관련법, 기타(장애

유형 등) 그리고 AT는 강의 과목의 수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표에서 '정보학 개론'과 '정보학입문' 등은 서로 교과목명은 유사하나 교육 내용에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들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의 강의내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장애 이슈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는 이들 교과목들의 강의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교과목의 강의 개요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공동주제의 유사한 교과목끼리 광의적으로 집단화한 것이 다음의 <표 17>이다.

<표 17> 장애 이슈 교과목의 공동주제별 집단화

교과목 및 공동주제		장애 관련법	서비스	AT	기타(장애 유형 등)
교과목	공동주제				
공공도서관/대학 및 전문도서관/정보센터론/디지털도서관/디지털도서관연구	도서관 행정	○	○	○	○
공공도서관경영론/도서관경영/학교도서관미디어센터경영론/학술정보센터경영론/도서관건축론/도서관정책/정보정책론	도서관 경영	○	○	-	○
문헌정보학개론/문헌정보학입문/정보와 사회	문헌정보학 기초	○	○	○	-
정보서비스론/장서개발론/정보시스템개발	정보봉사	-	○	-	-
특수이용자연구/특수봉사론/특수정보관리/특수정보관리론/특수매체론/멀티미디어론/재활공학/접자실습/접자학개론/독서요법론	특수 봉사	○	○	○	○

<표 17>을 살펴보면, 장애 이슈의 4가지 세부주제 모두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목의 공동 주제는 도서관 행정과 특수 봉사이며, 3가지의 세부주제 - 장애관련법, 서비스 그리고 기타 - 가 강의되는 교과목의 공동 주제는 도서관 경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관련법, 서비스 그리고 AT와 같은 3가지의 세부주제가 강의되는 교과목의 공동 주제는 문헌정보학 기초이고, 마지막으로 서비스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는 교과목의 공동 주제는 정보봉사라는 것도 알 수 있다.

3. 분석 결과 및 요약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장애 이슈에 대한 문헌정보학과 교육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이슈의 교과목 개설은 현재 문헌정보학과와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 모두에서 거의 배제되어 있다.

둘째, 장애 이슈를 자신의 담당 교과목에서 강의하는 교수는 전체 교수의 약 20% 정도이다. 그리

고 이들 중에서 이 주제를 교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을 지지하는 교수의 비율이 비개설을 지지하는 교수보다 약 1.5배 더 높지만, 이들 개설을 지지하는 교수의 비율은 전체 교수의 약 12%이다.

셋째, 장애 이슈의 교과목 개설을 지지하는 교수들은 이 주제를 전공선택으로 그리고 대학원 학위과정에 개설하는 것을 선호한다.

넷째, 장애 이슈와 관련해서, 강의 교과목 수와 담당 교수 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세부 주제는 장애인 서비스이고, 그 다음으로는 기타(장애유형 등), 장애인관련법 그리고 AT 순이다.

다섯째, 장애 이슈와 관련해서, 강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목의 공동 주제의 순위는 도서관 행정과 특수교육, 도서관 경영과 문헌정보학 기초 그리고 정보봉사이다.

IV. 결론 및 제언

도서관에서는 누구나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누구나 필요한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은 사서에게 정상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서비스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아직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과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으므로 현장의 사서나 미래의 사서에게 이 주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문헌정보학과에서의 장애 이슈에 대한 교육을 개선시키고 강화해야 할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ALA의 인증을 받은 문헌정보학과의 약 66%가 장애 이슈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과에서 현재 장애 이슈를 강의하는 교수가 약 20%에 불과하지만, 최근 들어 이 주제와 관련된 논문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바로 이 주제에 대한 문헌정보학과의 교육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논문 수뿐만 아니라 연구주제의 폭과 깊이를 더욱 더 확대할 것이다.

셋째, 미래의 사서는 과거와 달리 법률적 그리고 제도적인 강제조항에 따라 장애 이슈에 대한 전문 기술과 자세를 갖추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 문헌정보학과의 교육상황에서 장애 이슈의 교과목 개설이 불가능하다면, 이 주제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서관 행정, 도서관 경영, 문헌정보학의 기초 그리고 정보봉사와 관련된 교과목의 교육 내용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수교육학과 같은 타 학문분야와도 학문적 교류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대학원에서는 타학문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맡기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애 이슈 전문 사서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문헌정보학과와 표준화된 장애 이슈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때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기존의 전통적인 학문영역, 예를 들어 특수교육학, 사회복지학, 재활공학, 소프트웨어공학 등과 같은 타학문의 교육 프로그램과의 중속성 및 중복성을 피하면서 문헌정보학과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특수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타학문과 차별화된 문헌정보학과만의 고유한 장애 이슈의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추가로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보편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조사되지 않은 강사 및 교수들을 포함한 모든 교육자들의 강의내용에 대한 실제적이고 현장성 있는 질적 분석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는 표준화된 장애 이슈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